



청년층 주식투자 현황과 특징 분석

2021.11.19

금융 Youth 포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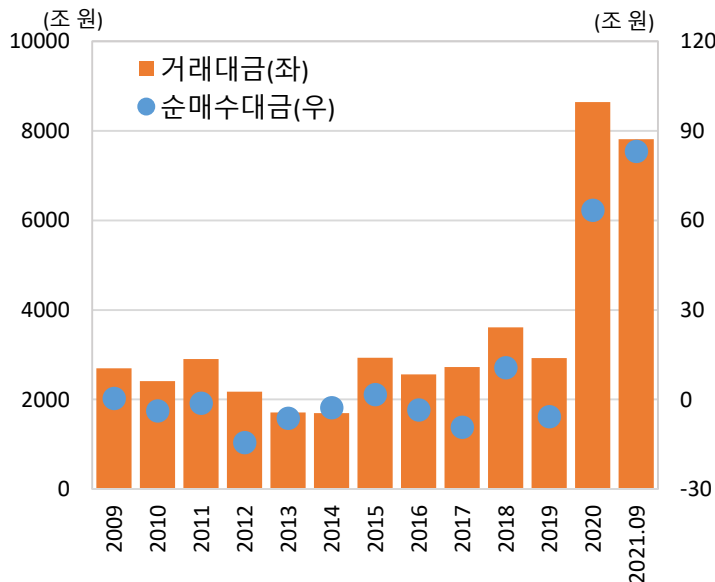
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기

국내 주식투자 현황

○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주식(직접)투자 빠르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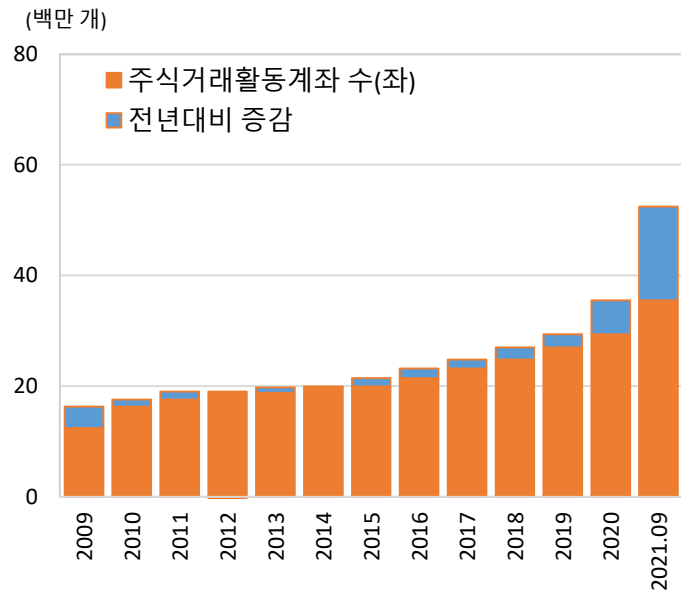
- › 기록적인 개인투자자 거래실적, 올해 거래실적은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
 - ('20)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8,710조원, 순매수 대금 64조원
- ›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대한민국 인구를 추월
 - ('21.09 기준) 주식거래 활동계좌 5,245만 개로 전년 말 대비 약 1,700만 개 순증
 - 수수료 경쟁, 공모주 투자 확대 등 영향

개인투자자 거래실적 추이



주: 코스피+코스닥 합산 기준 (거래대금=매수+매도대금)
자료: DataGuide

주식거래 활동계좌 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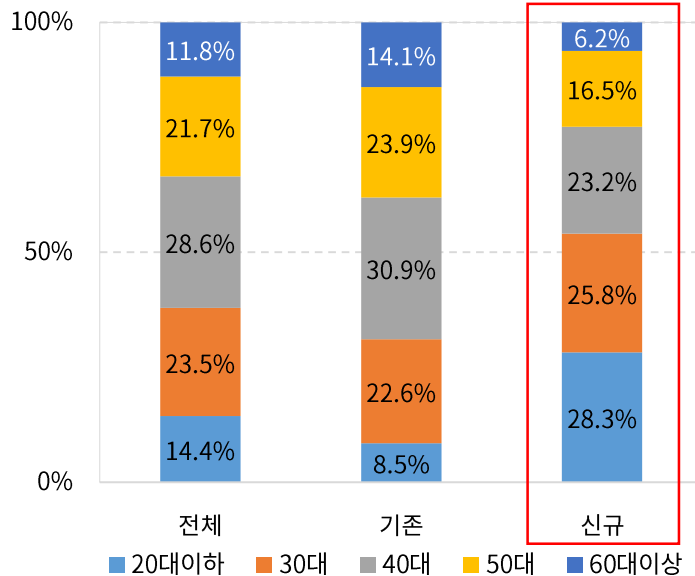
주: 활동계좌 = 예탁자산 1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내 거래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청년층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

20~30대 젊은 청년 투자자의 유입이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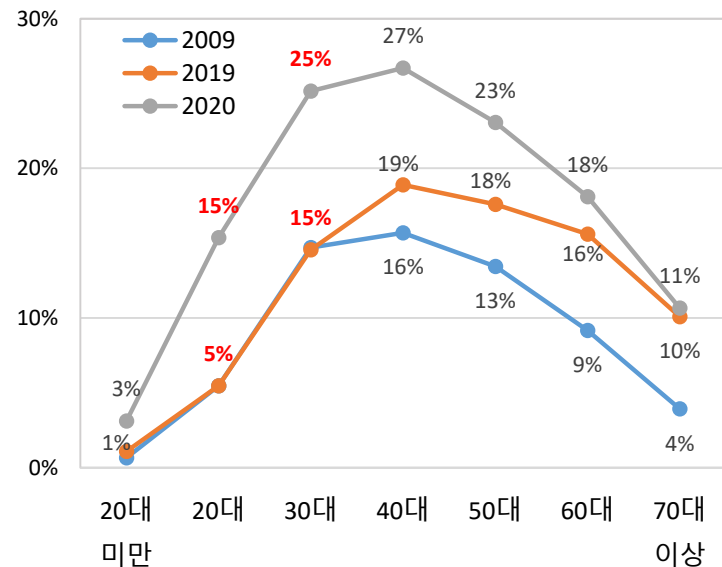
- 신규 유입된 투자자 중 30대 이하 청년 층이 과반 이상(약 54%) 차지
- 2020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주식투자자 수는 300만 명 이상 (예탁결제원)
 - 이 중 주식투자자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연령대: 20대, 30대
 - (20대) 5% → 15% (+10%), (30대) 15% → 25% (+10%)

연령대별 주식 투자자 구성



주: 증권사 표본고객 20만명 대상 (20.03~20.10)
자료: 증권사 제공 자료, 김민가·김준석(2021)

연령대별 주식투자자 비중 변화



주: 연령대별 주식투자자 수/인구 수(%) 비중 산출
자료: 예탁결제원, 통계청

‘직접’투자의 증가, 관찰은가?

● 투자자 저변의 확대, 저금리 시대 위험자산 투자 확대

→ 전체 자본시장 관점에서 ‘긍정적’인 측면 존재

-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구조
- 초저금리 시대 돌입
- 고령화, 100세 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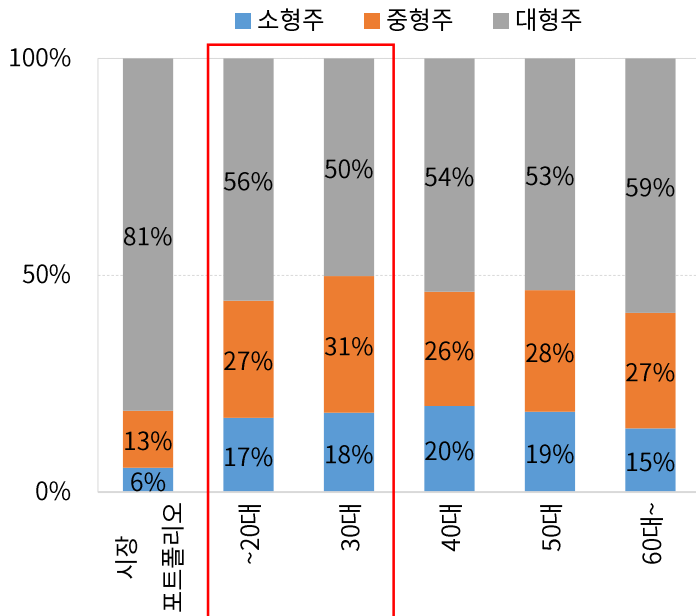
● 위험자산 투자는 ‘어려운’ 의사 결정

- 기업의 성과와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
-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드물
-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 및 주변 환경의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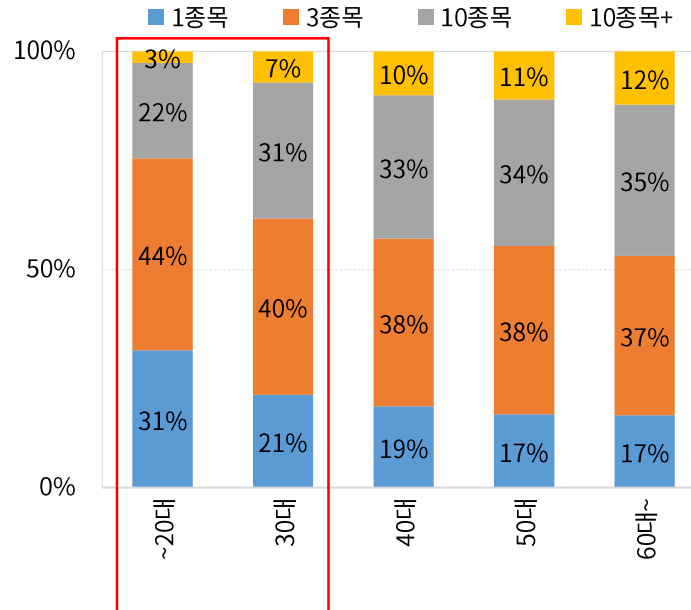
청년층 투자행태: 위험추구 & 과소분산

- 전반적으로 청년층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주식투자를 하고 있음
 - (포트폴리오 구성) 포트폴리오 내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시장 포트폴리오 및 고령층과 비교했을 때, 30대 이하의 중소형주 비중이 높음
 - (분산투자 수준) 20~30대의 분산투자 수준이 가장 낮음
 - 20대 이하의 75%, 30대의 경우 61%가 평균적으로 3종목 이하를 보유

연령대별 포트폴리오 구성



연령대별 분산투자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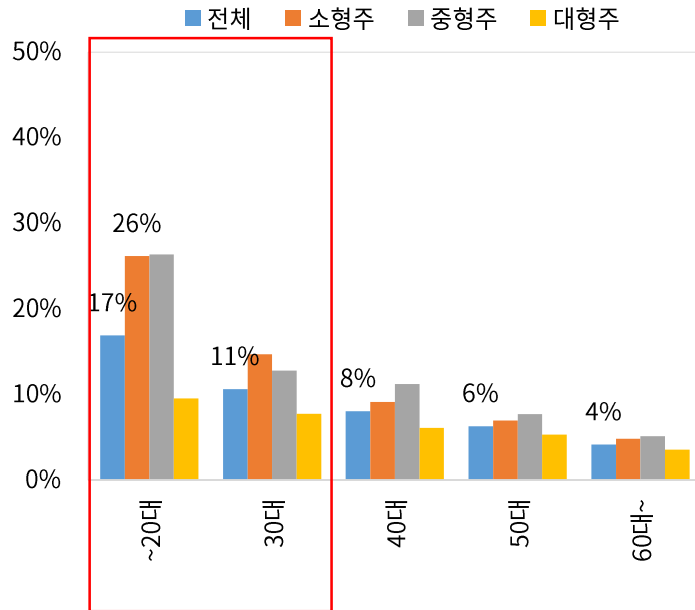
주: 증권사 표본고객 20만명 대상 (20.03~20.10)
자료: 증권사 제공 자료, 김민기·김준석(2021)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재인용

청년층 투자행태: 과잉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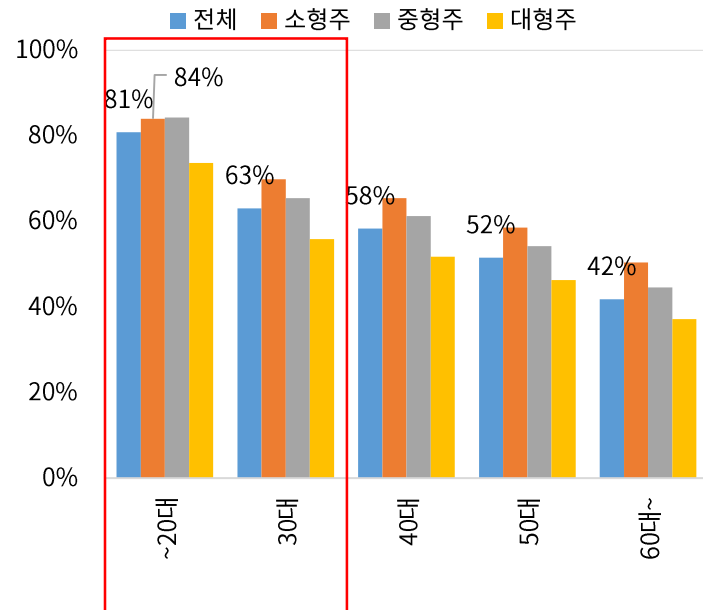
○ 청년층의 주식을 가장 과도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▶ (과도한 거래회전율) 20대 이하, 30대의 경우 일별 합산 거래회전율이 각각 16.9%, 10.6%
 - 연환산할 경우 각각 4,187% 및 2,631%로 매우 높은 수준
- ▶ (초단기거래 비중 高) 20대 이하, 30대 주식 거래대금 中 81%, 63%는 당일 매수-매도하는 일종 거래(day trading)으로 확인됨
 - 청년층의 과잉거래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집중

연령대별 일별 거래회전율



연령대별 일종거래대금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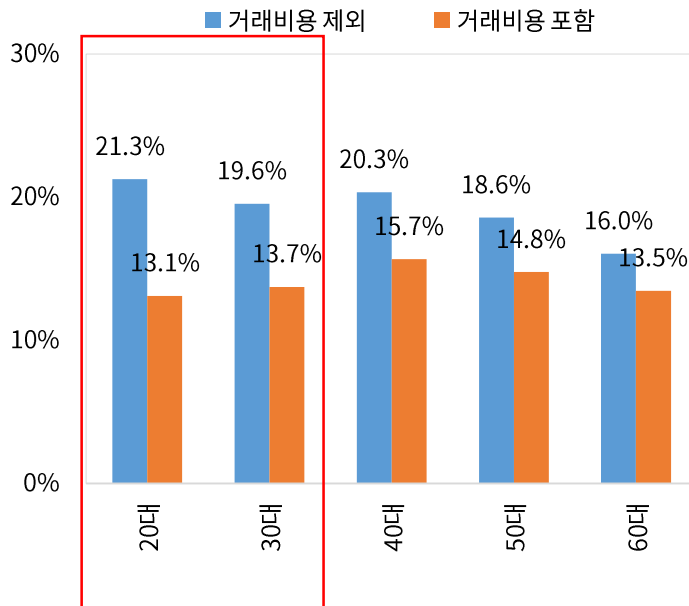
주: 일별 거래회전율 = 합산 거래대금/합산 포트폴리오 평가금액, 일종거래 = 당일 매수-매도한 거래
자료: 증권사 제공 자료, 김민기·김준석(2021)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재인용

청년층 투자성과: 합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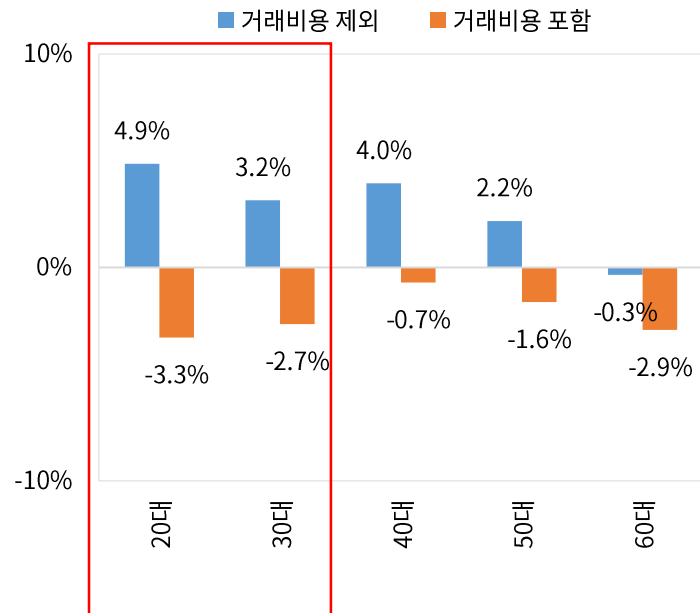
○ 청년층의 투자성과는 양호하나, 거래비용(거래세·수수료)을 차감할 경우 20~30대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

- ▶ (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익률) 거래비용을 포함할 경우, 20대 이하의 수익률이 가장 낮음
 - (누적수익률, 누적초과수익률) 20대 이하(13.1%, -3.3%), 30대(13.7%, -2.7%)
- ▶ (수익률 차감효과) 20대 이하의 경우 8.1%, 30대의 경우 5.8%가 거래비용으로 차감

연령대별 누적 수익률(20.03~20.10)



연령대별 누적 초과수익률(20.03~20.1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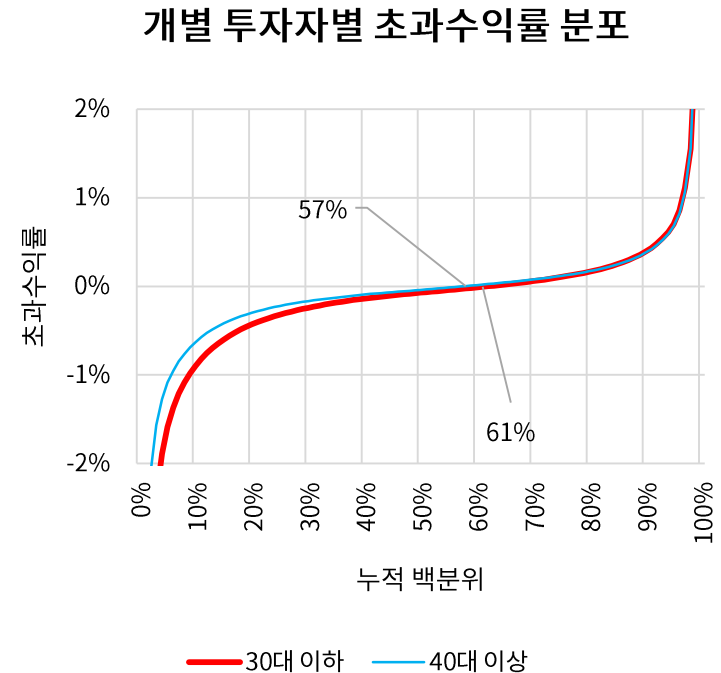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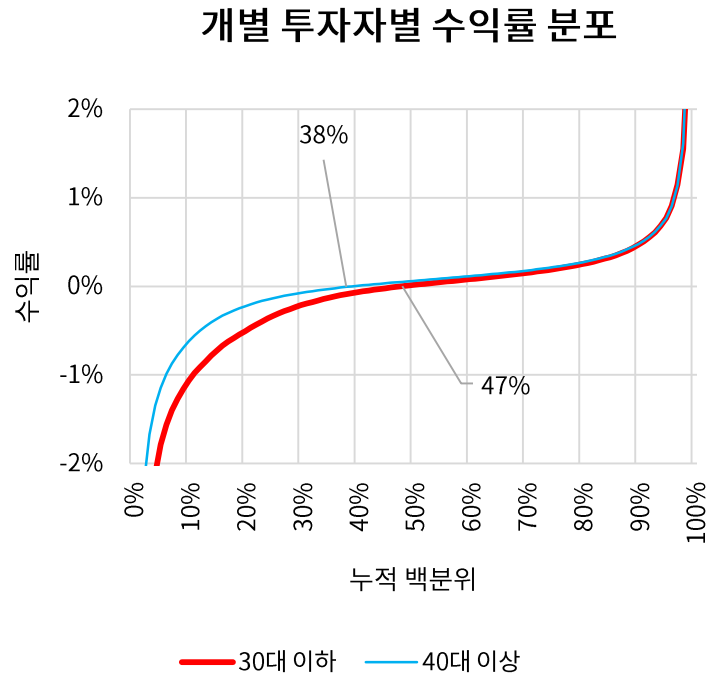
주: 거래비용 = 수수료 + 거래세, 증권사 표본고객 20만명 대상 (20.03~20.10 측정기간 8개월)

자료: 증권사 제공 자료, 김민기·김준석(2021)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재인용

청년층 투자성과: 개별

○ 분석 기간 중 청년층 내 투자성과가 저조한 투자자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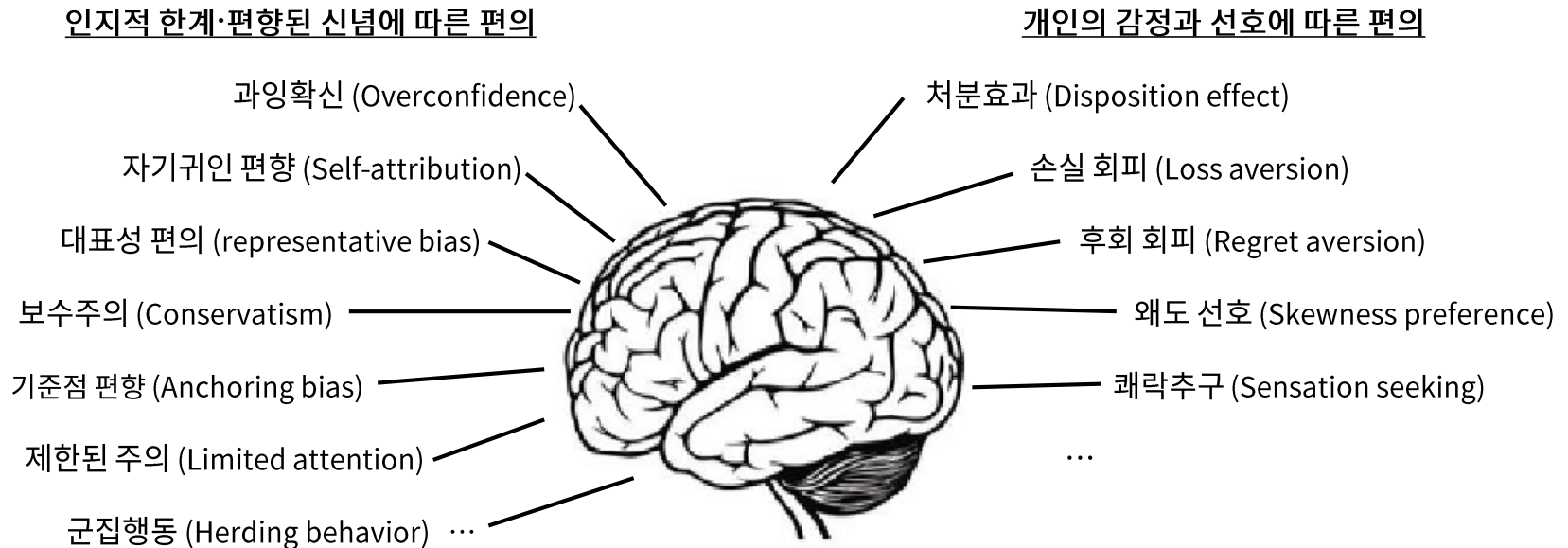
- ▶ (수익률 기준) 거래비용을 포함할 경우 30대 이하 투자자 중 투자손실이 난 비중은 47%
 - 40대 이상의 경우 투자손실을 기록한 투자자는 전체 38%로 나타남
- ▶ (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) 30대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, 전체 61%가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
 - 40대 이상은 57%로 젊은 투자자 그룹 대비 소폭 하회



투자자의 행태적 편향

- 개인투자자의 비효율적인 투자행태는 사람의 행태적 편향(behavioral bias)과 관련
 - 행태적 편향: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신념이나 선호,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
 -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관찰됨
 - 이러한 투자자의 행태적 편향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

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태적 편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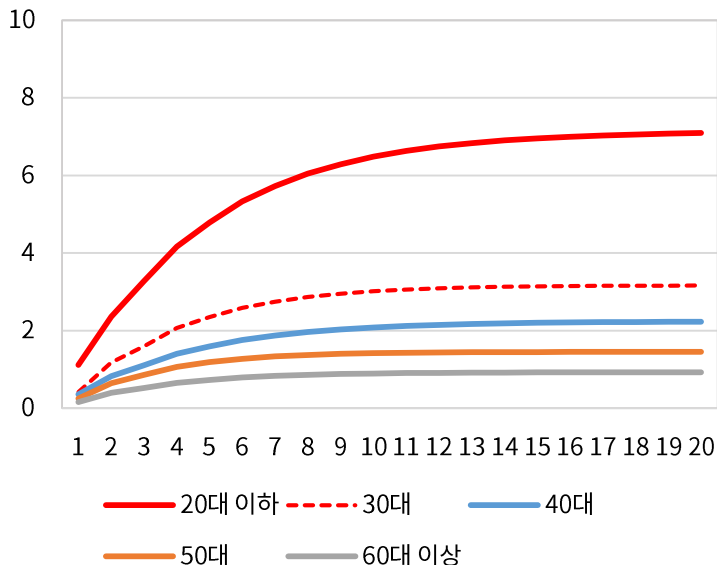


투자자의 행태적 편의: 실증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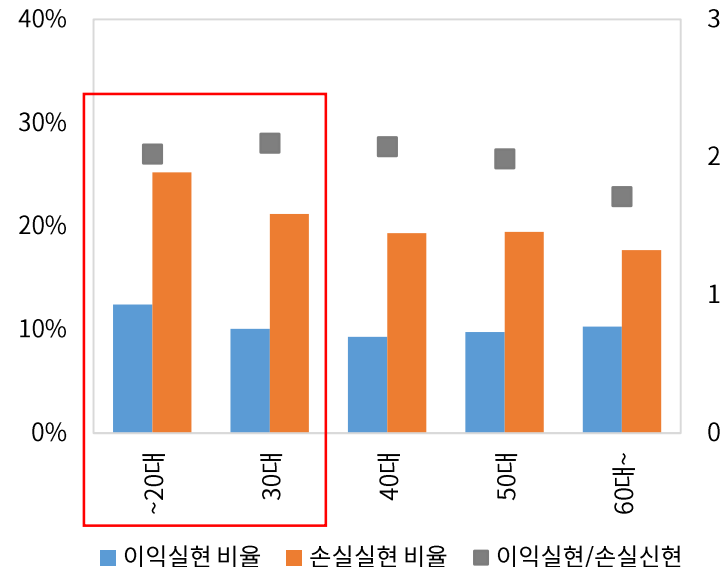
○ 실증분석 결과, 20~30대 젊은 투자자 사이에서 행태적 편의가 강하게 나타남

- > (과잉확신) 과잉확신을 갖는 투자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식시장 수익률-거래회전율 사이의 정(+)의 시차관계가 젊은 투자자에서 뚜렷하게 관찰
 - 과잉확신 투자자는 주식시장 상승 시, 좋은 성과를 본인의 능력이라 생각 → 더 강한 확신 → 거래 유발
- > (처분효과) 젊은 투자자일수록 이익실현 확률이 높으며, 이익실현 비율과 손실실현 비율간 상대적 비중도 더 크게 나타남
 - 처분효과: 손실보다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현상

시장수익률 상승(+)에 따른 거래회전율 누적 변화



연령대별 처분효과 검증



주: 시장수익률 한 단위 (+)충격에 따른 거래회전율의 누적충격반응 결과
자료: 증권사 제공 자료(자료기간: 20.03.20.10)

주: 이익(손실)실현 비율 = 이익(손실)실현 / (이익(손실)실현 + 이익(손실)보유)
자료: 증권사 제공 자료(자료기간: 20.03.20.10)

청년층 투자행태 개선방안

-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완화하고 행태적 편의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
 - ▶ 과거에 비해 높은 직접투자 접근성, 방대한 투자 대상과 정보 →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를 유발

간접투자수단 및 투자자문 활용도 제고

행태적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접투자 환경 조성

투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